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9. 6.(수) 조간
(인터넷) 9. 5.(화) 12:00

총 상금 15억원, 창업기업(스타트업) '진검승부' 이제부터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3」11개 예선리그에 총 6,187조(팀)이 신청하여 평균 31대 1의 경쟁을 뚫고 통합본선 진출 200조(팀) 확정

- 앞으로 2개월 간의 통합본선·왕중왕전을 통해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의 주인공이 될 20조(팀) 선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개 부처*가 주관하는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3」의 11개 예선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5일 프론트원(서울시 마포구)에서 통합본선 개막(킥오프) 행사를 개최하고 최종 20조(팀)를 선발하기 위해 통합본선·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특허청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예선리그별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했다. 총 6,187조(팀)가 신청('22. 5,420조(팀))해 통합본선 진출 기준 평균 31대 1의 경쟁률('22. 25.8대 1)을 기록하는 등 예선리그부터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 200조(팀)이 통합본선 무대를 밟았다. 특히, 이 중에는 올해 신설된 외국인 유학생 분야(트랙) 출신 외국인(5조(팀))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통합본선 진출조(팀)는 19일부터 4일간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 30조(팀)로 압축되고 이후 10월말에 있을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20조(팀)를 선발해 총 상금 15억원과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하며 대회가 종료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본선 진출조(팀) 등 참석자 200여명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도전! 케이(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출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조성에 첫발을 내딛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글로벌) 창업 대국 실현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실 기술창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640)
		담당자	연구관	이종섭 (044-204-7641)
			주무관	김이삭 (044-204-766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도전! K-스타트업 2023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기술창업 분위기 확산('16~)

* '23년 참여부처(11개) : 중기·교육·과기·국방·문체·환경·여성·국토부, 방사·산림·특허청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상금**(총 상금 15억원, 최대 3억원)·**상장**(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 **(추진절차) 부처별로 예선리그를 개최**하고,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통합본선,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20팀) 선정

< 선발 및 추진절차 >

참가자 모집	예선	통합본선 네트워킹	통합본선 평가	왕중왕전
부처별 예선리그 접수	부처별 예선 (서류·발표평가 등)	통합본선 진출팀 네트워킹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 (발표평가)	최종 20팀 순위 결정 (발표평가)
2월~6월말	~8월말	9월 1주	9월 3주(4일)	10월 4주

< 도전! K-스타트업 2023 운영 체계 >

